풍랑 속의 기원

그후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은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배 젓기에 몹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대로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 시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를 유령인 줄로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보고 그만 당황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요. 안심하시오. 겁낼 것 없소」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가 6 : 45—51)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 고생을 하는 광경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고요하게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육지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실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안간힘을 써 가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돌풍·풍랑·좌절의 세계로 밤과 어둠의 지배하에서 발버둥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힘 아래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서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우선 살고 보자는 아귀다툼의 인간 세계이며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댓가라도 치러 나가야겠다는 생존에의 의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생존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이렇듯 역풍을 만난 배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이 돌풍과 역풍을 이기고 고요한 아침, 바람이 자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자 하는 강한 바램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밀어닥치는 역풍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칩니다. 이런 시련에 부딪치게 될 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즉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고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소위 Survival Mentality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더라도 나 혼자만은 살아야겠다는 의식으로서 남들이 물에 빠져 죽더라도 나 혼자만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가져 보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부서진 뱃조각을 붙잡고 혼자 표류끝에 어느 무인도에 다달아서 온갖 고생끝에 혹시나 살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 가능성을 순간적으로 가져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집념도 가져 봅니다.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경건한 신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사변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북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한 공산군이 물밀듯 남침하게 되자 교역자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교인들의 생사여부는 알아보려 하지 않고 먼저 특별열차로 남쪽의 머나먼 거제도·제주도까지 먼저 피난을 갔고 거기에서 또 특별수송선을 타고 일본·미국·카나다·등지로 가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해방 후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수많은 교역자들이 교인들을 남겨둔 채 이남으로 피신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유엔군이 한국전쟁 때 이북에까지 진군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였을 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피난 행위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잘못이라고 꾸짖거나 나무랄 수는 없읍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처지에서는 별다른 처신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는 점은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한반도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거의 예외없이 자신만이 먼저 살고 보겠다는 생존의 의지를 굳혀 왔다는 사실을 회피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흔히 안보를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과 함께 말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고 우선 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읍니다. 이 말도 역시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권(Survival Mentality)의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의 냉혹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말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6·25와 같은 전란을 겪으며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전쟁이 또 다시 터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때나 다름없이 역시 나만 먼저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과거보다 더 억세고 악착스럽게 이러한 생존 경쟁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이 휴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실 상태에서도 우리의 의식 속에 벌써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풍조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남을 착취해서라도 먼저 배불리 먹으려 하면서도 남의 고통과 슬픔에는 완전히 둔감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남이 고생하고 슬퍼하고 고난받는 현실을 거들떠 보기는 커녕 격정하거나 기도를 해주는 일까지도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는 일이 배를 요동시켜 자기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나무라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존권을 말하면서도 무서운 개인주의, 무관심의 독소를 키워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권이라는 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또 나 혼자만의 생존권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도 있읍니다. 한국이라는 배를 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존권을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생존권의 의미로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국민의 주권이 인정될 때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인권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 온 기본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약점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온 나라를 점거했는데도 임금과 옥새만 피난하면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화·의주·나주로 피난했던 무력한 전통적인 호국사상의 약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생존권이란 말을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재규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존권, 한 국민의 생존권은 그 개인이나 국민의 주권이 충분히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생존권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이 무시된 나라에서 그 국민의 생존권을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허황된 일입니다. 특권층이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재산을 외국에 빼돌리고 만다든지,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도망갈 길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나라에서는 특권층의 생존권은 있을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월남 전쟁에서 보았읍니다. 공산군에게 함락이 되자 그렇게도 끈질기게 정권에만 집착해 있던 티우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이 배에다가 자기 민족을 버려둔 채 먼저 도망쳐 버렸읍니다.

그렇게도 민족의 생존권과 안보를 외치던 위정자들이 지금은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풍랑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대조적인 세계가 있읍니다. 그것은 조용하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풍랑을 맞이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돌풍에 말려든 배 안에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셨읍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놀라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또 하나의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신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른다고 자처한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유령을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읍니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우리의 눈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말하면서, 이러한 착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안보와 생존권만 생각하고 집착한 제자들이 이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촛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촛점을 두지 않고 교회라는 제도나 기구에, 또 그러한 제도나 기구의 생존권에만 집착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흐리멍텅해 보이며 유령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제자들과 교회는 크나큰 역사적 착각 속을 헤매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파선 직전의 배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크나큰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정치가들은 닥치는 대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서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풍랑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항구적인 평화와 모든 백성의 생존과 안정을 가져다 줄 이는 과학 기술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한국 기독교 산업 문제 연구원이 단순한 학술 연구 기관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연구원 속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 점이 있다면, 그것은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고 조리있게 그리스도의 현주소를 찾아내고 그가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원은 조금도 흥분하거나 떠들지 않고, 또 색다른 낱말을 만드는 기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나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라와 그 의의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 안에서 조용하고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 연구원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함께 이러한 연구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산업 문제 연구원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항상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산업문제 연구원)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